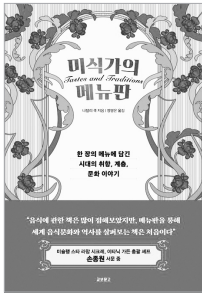


# 한 장의 메뉴판, 세계를 보여주다

## 미식가의 메뉴판

니탈리 쿡 지음, 정영은 옮김



화려한 영국 왕의 대관식 기념 오찬 메뉴판은 그 자체만으로 식탁에 차려진 호화로운 음식을 떠올리게 한다. 요리사 복을 입은 돼지들과 유쾌한 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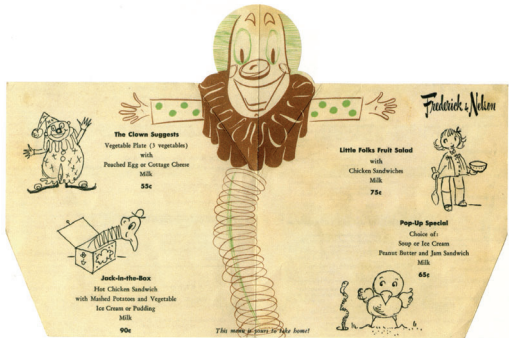
책에 등장하는 온갖 메뉴판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상상의 나라를 떠돌게 된다.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메뉴판을 통해 세계여행을 떠나고 역사 속 사실과 조우한다.

캐나다 몬트리올을 객담교 교수로 음식과 문화, 식문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니탈리 쿡이 쓴 '미식가의 메뉴판'은 음식 너머에 담긴 사회와 문화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풍부한 메뉴판 사진이다. 시대와 국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진은 독자를 당시의 식탁 앞으로 데려간다.

메뉴판의 기본 역할은 음식 선택을 돕는 것이지만 많은 메뉴판은 인쇄술과 예술, 그래픽 디자인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자료 역할을 하고 당시의 문화를 소개하는 소중한 사료가 된다.

1장 '눈이 즐거운 만찬'에서 만나는 메뉴판들은 하나의 '작품'처럼 보인다. 과감한 인물 묘사와 섬세한 스케치 선으로 풍부한 장면을 연출한 톨루즈 로트렉의 메뉴판과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삽화처럼 유명한 일러스트가 실린 메뉴판 등은 매혹적이다. 호화 여객선에 오른 이들의 식탁 위에는 여행할 나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메뉴판이 놓인다.



프레더릭 앤드 넬슨 백화점의 어린이 메뉴. 1955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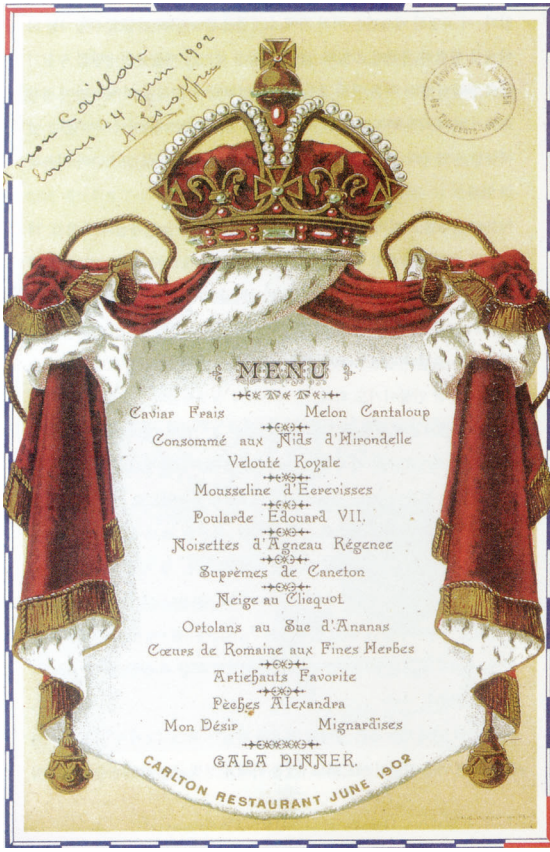
메뉴판은 추억을 상기시키는 '기념품'이 되기도 한다. 팬아메리카 항공 등에서는 인기 있는 메뉴판을 집으로 우송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고 메뉴판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등장했고, 옥스퍼드 보들리언 도서관 등에는 그들이 기증한 수만 점의 메뉴판이 보존돼 있다.

1920년대 여행산업의 발달은 어린이 전용 메뉴판을 탄생시켰다. 지금은 어린이 메뉴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오랜 기간 아동들의 취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교통의 발달로 장거리 여행이 늘고 호텔과 패밀리레스토랑이 확산되면서 어린이가 새로운 소비 타겟으로 떠올랐고 업체들은 그들을 위한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다.

색깔이 화려한 삽화나 동화 속 캐릭터를 싣고 미로 찾기 등 놀이도까지 겸한 메뉴판이 인기를 끌었고 조르주 들루의 기발한 삽화는 아이들의 미각 뿐 아니라 시각적 감각까지 길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뉴판은 때론 자국의 가치를 강조하고 선입견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1930년대 뉴욕 세계박람회의 소련 파빌리온에 등장한 메뉴판에 '저희 직원들은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관습에 따라 팁 주기를 삼가주시시오'라는 글귀가 함께 실린 게 대표적 사례다.

책은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한 음식의 기준, 미식과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수께끼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밖에 어떤 항목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손님의 선택과 매출



칼튼 레스토랑의 대관식 기념 연회 메뉴판. 1902년.

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메뉴판을 구성하는 메뉴 공학자의 존재도 흥미롭다.

버나드 프리드가 뉴욕공립도서관에 기증한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수많은 메뉴판은 뉴욕의 피자집 등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식당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당신이 어느 날 들렀던 식당의 메뉴판도 시간이 흘러 '시대'를 증언하는 귀한 자료로 자리할 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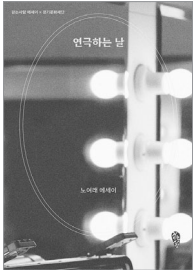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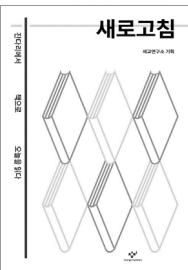
〈교보문고·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슈퍼컨버전스, 초융합 시대가 온다 (제이미 메를 지음, 최영은 옮김)=AI와 유전공학, 바이오테크가 결합하며 의료·식량·경제 전반을 바꾸는 '초융합'의 시대를 전망한다. 유전체 기반 정밀의료, 유전자 편집 농업, 바이오 신소재 등 향후 5~10년 안에 현실화될 변화들을 최신 사례로 짚는다. 생명 설계 기술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함께 제시하며 다가올 기술 전환의 방향을 잃게 한다.  
〈비즈니스북스·2만4000원〉

▲새로고침(세교연구소 기획)=분단체제와 국제질서, 민주주의의 위기,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복합적으로 얽힌 오늘의 한국 사회를 책 읽기를 통해 다시 사유하는 서평집이다. '분단 이후의 세계', '차별과 격차', '생태적 전환', '문화의 힘' 등 다섯 주제로 묶인 32편의 글은 이미 출간된 책들을 재해석하며 단선적 처방을 넘어서는 질문의 깊이를 제안한다. 〈창비·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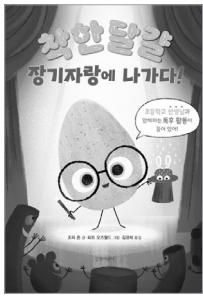
▲연극하는 날(노여래 지음)=서울역 인근 노숙인 센터 이용자들이 결성한 아마추어 극단 '연필봉'의 13년을 기록한 다큐에세이다. 거리와 쪽방을 오가며 이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첫 정기 공연을 준비하며 겪는 갈등과 연대의 순간을 따라간다. 연습실과 공연장, 무대 밖의 시간을 오가며 예술이 삶



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걷는사람·1만2000원〉

▲장사의 철학(사사이 기요노리 지음, 김정환 옮김)=유니클로·무인양품·이온몰 등 일본 대표 유통 기업들이 경영의 뿌리로 삼아온 '장사 10계명'을 정리한 책이다. 일본 상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라모토 조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 직원 존중,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장사의 본질을 짚는다. AI와 플랫폼 경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의 원칙을 짚는 글과 사례로 풀어낸다.  
〈한국경제신문·1만9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친구를 만드는 커다란 귀(허은미 지음, 소북이 그림)=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지며 말하기는 늘었지만 듣는 법은 잊어버린 아이들에게 '경청'의 힘을 전하는 그림책이다. 귀를 닫고 살던 아이가 신비로운 마녀를 만나며, 진짜 소통은 말을 잘하는 데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어 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관계의 첫걸음이 '잘 듣는 일'임을 일깨운다. 〈다봄·1만5000원〉

▲착한 달걀 장기자랑에 나가다!(조리준 지음, 피트 오즈월드 그림, 김경희 옮김)=장기자랑 대회가 열린 슈퍼마켓 마을에서 착한 달걀은 무대 위 주인공 대신 뒤에서 친구들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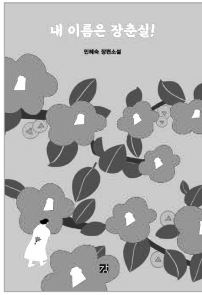
를 잊고, 약기가 고장 나고, 불이 꺼진 순간마다 착한 달걀 덕분에 공연은 계속된다. 착한 달걀의 이야기는 발표와 비교 앞에서 주눅 들기 쉬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건넨다. 〈길벗어린이·1만1000원〉

▲아빠의 겨울 방학(김유진 지음)=겨울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는 아이는 낯선 환경을 떨치며 아빠의 어린 시절과 만난다. 딱지치기와 눈싸움, 만화잡지와 전자오락 같은 아빠의 추억은 아이에게 낯설고도 새로운 겨울의 풍경이 된다. 따뜻한 색감의 그림은 부모와 아이를 이어주며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게 하는 세대 공감의 순간을 전한다.  
〈책읽는곰·1만5000원〉

# 50년만에 가족 만난 탈북 여성...돈 앞에 무력한 혈육들

## 내 이름은 장춘실!

민혜숙 지음



지난 83년 방영된 '이산가족 찾기' (6월 30~11월 14일)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프로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은 그만큼 깊었다. 많은 사연들이 알려졌 때마다 시청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일처럼 먹먹했고 슬퍼했다. 방송국 곳곳에 부착된 수많은 사연들, 가족을 찾으려는 호소문들은 그 자체로 뉴스였고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상징했다.

민혜숙 작가의 장편 '내 이름은 장춘실!'은 한 탈북 여성의 여정을 따라 펼쳐지는 탈북민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다.

민 작가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던 당시 대학원생이었다. 그는 "마침 방학을 맞아 며칠 동안 텔레비전

앞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며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피켓과 벽에 써붙인 호소문을 비취줄 때마다 눈물을 닦으며 함께 울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실수나 잘못에 비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비극을 정의하는 말이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된 그들이 가여웠고, 억울했다"고 덧붙였다.

가족의 상봉은 눈물바다를 이루게 했지만, 인간사는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 작가가 주목한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이었다. 자칫 거대에 못 미처는 가족의 등장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작품 속 춘실은 고회를 넘긴 여성이다. 먼저 탈북한 작은딸을 따라 50여 년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 담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안 죽고 용케 살아 있었구나" 하며 아버지는 춘실의 어릴 적 이름을 기억하며 다정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족 몰래 돈을 좀 주었 을 뿐, 두 사람은 밥 한 끼 함께 먹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버지의 새 가족들은 춘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춘실이는 피붙이인 작은딸도, 북에 있는 남동생도,

아버지의 새 가족도 돈 앞에 무력한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애면글면 키운 딸이고 업어 키우다시피 한 동생인데, 그들은 돈이 우선이다. 춘실을 냉대하고 외면하는 아버지 가족의 태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민 작가는 탈북민이 4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들의 치열한 사연들은 우리에게 성찰과 사유를 요한다.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1세대 이산가족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 탈북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이산가족에게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안타깝다"며 "같은 민족'이라는 말의 의미도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안전지대에서 살아온 행운이 다행스러우면서도 공연히 미안하다"고 전했다.

한편 민 작가는 연세대 불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전남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 호남신학대에서 강의했다. 소설집으로 '서울대 시지프스', '황강 가는 길' 등과 장편소설로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 '돌아온 배' 등이 있다.  
〈강·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